

난개발에 찢기고 ... 개발 안 돼 생활불편

▶ 남석, 금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진도 가사도는 개발 열풍에 시달리고 있다. 산업통상부 남부광산보안사무소의 광업권 허가를 받은 채굴업체가 최근 금광 개발에 나선데다 전남도가 2016년 까지 추진중인 생태섬 사업까지 진행중이다. 인근 남석광산까지 섬 곳곳이 파헤쳐지고 포크레인, 트럭 등 중장비가 시끄럽게 오가고 있다. 일부 주민, 출향 인사의 반발에도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 전해의 자연자원이 풍부한 신안 도초도는 아편바위, 문바위 등 해변의 장관이 멋지지만, 외지인은 물론 주민도 접근할 수 없다. 이곳으로 향하는 도로가 정비되지 못한 탓이다. 이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에 포함돼 있는 전남 도 서들도 마찬가지다. 규제가 심해 주민·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만이 아니라 기반시설도 제대로 설치하기 어렵다.

진도 가사도 전체가 공사장

전남의 대표자연이 자재성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전남 섬에 대한 개발 정책과 사업이 일관되지 않는 목소리가 높다. 개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섬이 있는가하면 규제와 예산의 한계로 인해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섬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 관광객 유치 위주의 정책과 사업보다는 고령화되고 갈수록 그 수가 줄고 있는 섬 주민의 거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30억원을 투입해 생태섬사업을 추진중인 진도 가사도는 최근 민간업체의 금광 개

섬 島 아 프 다

전남, 섬 개발 양극화 관광객 유치도 좋지않 거주여건 향상 우선

발까지 겹치면서 면적 약 6.4km²의 조그만 섬 전체가 거대한 공사장이 됐다. 지난 2008년 채굴허가를 받은 한 업체가 진도군으로부터 울 초 4950m²의 개발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채굴에 나서 일부 주민과 마찰도 빚고 있다. 지하자원이 풍부한 가사도는 금광 인근에 기존 남석광산까지 있어 섬 곳곳은 포크레인과 대형 트럭이 오가고 있으며, 여기에 생태

섬 사업인 생태탐방로 개설, 해안생태숲 조성, 야생화 암석원 및 방문자센터 건립 등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일 3차례 가학항에서 출발하는 도선의 운항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섬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가학항 주변 양식장 업주의 피해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진도군, 전남도의 대책은 전무해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가사도 금광의 경우 사업성이 높은 편"이라며 "산자부에서 이미 채굴허가를 받아 개발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안 도초도 편의시설 부족

개발이 중복되는 섬이 있는가하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상당수 섬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반시설조차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신안 도초도, 여수 금오도 등이 대표적으로, 주민들은 외지인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대하면서 도 정작 거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은 인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도로 정비, 상하수도 개선 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이들 섬 주민들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불편은 젊은층의 이주로 이어져 섬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상태다. 여수 남도의 경우 299명의 주민 가운데 198명(66.1%)이 60세 이상으로, 30대까지의 인구가 고작 36명(12.0%)에 불과하다. 고흥 연흥도 주민 102명 가운데 68명(66.7%), 가우도 31명 가운데 25명(80.6%), 관매도 240명 가운데 140명(58.3%)이 60세 이상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교사 배정 '학생수 기준' 바뀐다

교육부, 내년부터 변경

초등 전남 130·광주 13명 줄어

교육청별 교사 배정 방식이 내년부터 바뀐다.

당장, 광주·전남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통보한 '2016학년도 초·중등 교원 가배정 현황'에 따라 전남 초등 교원 13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촉

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각 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고려해 배정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 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교육부 안은 현행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의한 교사 배정 방식 대신, 전국 평균 학교별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전체 교원 정수에서 학생 수가 늘어난 교육청에는 배정되는 교원이 늘어나는 반면, 줄어든 교육청은 교원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이같은 방식을 적용한 내년도 교원 가배정 결과, 전남의 경우 초등 교원이 130명이 줄었고 광주도 초등 교원 13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중등 교원은 올해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교사 배정 방식에 따른 교사 증감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산타 저금통 여는 날 광주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10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청사 휴게실에서 지난 1년간 모은 동전모금액을 개봉하고 있다. 모금액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야, 내일 '2+2 회동' 선거구 확정 최종 담판

정의화 의장 "15일까지 합의 안되면 특단의 조치"

여야 지도부가 오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확정 문제와 관련해 '최종 담판'을 시도하기로 해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15일 이전에 선거구 확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서 12일 회동 결과가 선거구 확정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 확정 문제를 안건으로 회동한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도 배석한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는 애초 이날 만나 선거구 확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급한 상황에서 각자 회동의 성과를 내기 위

한 '마지막 카드'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친 뒤 회동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수차례 전화 회동을 하고 국회 차원의 선거구 확정 기준 확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12일 회동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선거구 확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는 것은 이날 들어서만 3번째다. 앞서 두 차례 회동에서는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인다는 '대원칙'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비례

주차단속 급증 주차장은 그대로 ▶6면



新 팔도유람 - 충북 제천 ▶18면

대표 측소에 따른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의화 의장까지 나서 양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어 협상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된 상황이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선거구 확정과 관련,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확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의장은 '특단의 조치'에 대한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15일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에 특단의 조치를 구상한다는 말이고, 지금 밝히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의장 나름으로 생각하는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중심을 잡습니다 핵심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국내의 최대 취재망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형잡힌 언론의 시작은
언제나 연합뉴스입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포맷